

# ‘푸른길 시즌2’ 광주선 철도 지하화 사업 본격화

## 시, 지하화·상부 개발안 용역

### 광주역~광주송정역 14km 구간 소음·진동·도심단절 해소 기대 ‘국토부에 국가계획 반영 요청’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푸른길 시즌2’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광주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기존 푸른길을 연결하는 생태축과 광주역~송정역 구간 철도 노선을 폐지하고 푸른길로 활용하자’는 바람이 현실화 된 것이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3일 광주시는 광주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광주선은 국가철도로 광주역~광주송정역까지 약 14km의 지상 구간으로, 광주 도심 가로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고, 안

전사고 위험, 지역 단절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본보 2023년 11월6일자 3면>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6월3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입찰 일정 및 참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이나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한다. 이 특별법은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비용을 우선 조달한다. 이후 상부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

이다. 실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들이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는 광주역~송정역 구간을 이용 실태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KTX 송정역이 개통된 이후 광주역에는 용산행, 목포행 등 3개 일반 철도 노선이 하루 20회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광주역 여객 수송 실적으로 산출한 1회당 이용자는 광주→용산 새마을호 47명, 광주→용산 무궁화호 40명, 광주→목포 무궁화호 9명, 광주→송정 셔틀열차 16명으로 총 112명이다.

또 2023년 12월 셔틀열차가 중단되면서 이용객은 100명에도 못 미치게 됐다.

이 때문에 이용객 수가 많지 않은 광주역~송정역 간 철도를 푸른길 폐선 부지처럼 없앤 뒤 해당 구간을 푸른길로 연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10월 열린 ‘광주역~송정역 도심 철도 노선 폐지와 폐선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안·토론회’에서

는 광주역 폐지 근거와 노선 폐지 시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를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률특보인 박준택 변호사(현 민주당 국회의원 광산갑 당선인)는 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역사·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이 ‘2030광주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돼 용역 중인 점을 광주역 폐지 근거로 내놨다.

또 철도변 거주자 위주로 ‘광주역~송정역 노선 폐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 노선의 문제점을 알리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주민 정책 토론회 등을 열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다른 토론회자 역시 푸른길 산책공원, 생활체육 시설, 공연장, 청소년 레일바이크 공간, 조망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시민공원 조성 방안 등을 폐선 부지 활용책으로 제시했다.

윤희철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고 지하철로 송정역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

람들은 당연히 (광주역) 무용론을 이야기할 것이다”며 “광주역 구간을 푸른길로 바꾸는 생각에 대해 누구나 쉽게 동의하는 등 가시화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향후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용역을 통해 지하화 방안과 상부 개발 구상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간을 발굴한다.

또 전문가, 관련 기관, 자치구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철도 지하화는 남북 교통망을 연결하고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영국, 청정에너지·문화관광 협력 모색

### 김영록 지사, 주한 영국대사 면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 ‘협력 강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전남도와 영국 간 청정에너지, 문화관광 등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023년 11월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기 전 주북한 영국대사를 역임하는 등 한반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김 지사는 전남도의 청정에너지 리더십을 강조하며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등 세계 최대 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해 재

생에너지100(RE100)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 인프라 개발 등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덴마크 베스타스와 대규모 터빈공장 투자협약을 통해 이런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영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함께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4-2026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을 통해 △축제·둘레길 △남도미식 △웰니스 △남도 K-컬처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남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문화관광 대국인 영국과의 교류를 통해 전남이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4. 5. 13.(월) 전라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크룩스 대사는 전남도의 글로벌

비전에 공감을 표하며 “영국과 전남도가 청정에너지, 문화관광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광지혜 기자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질 유산, 무등산을 걷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전남일보가 ‘제18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를 갖습니다.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문빈정사 광장을 출발해 자율 산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무등산의 풍경을 만끽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며, 등반과 함께 정화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무등산의 추억’을 담아가실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 일 시 - 2024년 6월 15일 (토) 오전 8시30분
- 장 소 - 문빈정사 앞 광장 (집결)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3일 (월) ~ 6월 10일 (월)
- 인 원 - 300명 선착순 접수
- 1365 자원봉사포털 이용 자원봉사 가능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 의 - 062) 519-0730~1
- 주최주관 - 전남일보 · 전일엔컬스
- 후 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 · 담양군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